

물론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대상이 누구이든지 그것 또한 자유입니다. 지금은 “여성이 담배를 피워서 안된다.” 라는 것에 대해 토론하는 시대가 아니라, 담배에 대한 매너라든지 담배의 위험성등을 알려야 하는 시대가 된것입니다.

흔히들 담배는 습관성이고 마약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우기시작하면 끊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또 옆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담배가 피우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것에 대해서는 전혀 논란의 대상이 안됩니다. 단지 담배를 피우므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상식없는 매너도 또한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면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옆 사람에게 재가 날아간다든지, 화장실에서 피운다든지 담배꽂초를 던져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은 금연장소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담배예절에 대한 캠페인도 함께 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금연실을 만든다든지, 금연에 대한 캠페인을 한다든지 금연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에 대한 예절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좋은 문구를 만들어서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등에 실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재떨이가 없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워서 안된다고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도록 모두가 협력하고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